

신소설 표기에 반영된 문법단위의 인식

- 연철·분철 표기와 띄어쓰기를 중심으로 -

안예리*

|| 차례 ||

- I. 서론
- II. 분석 자료 및 방법론
- III. 연철과 분철에 반영된 형태론적 단위에 대한 인식
- IV. 띄어쓰기에 반영된 통사론적 단위에 대한 인식
- V. 결론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20세기 초 신소설 표기에 반영된 문법단위에 대한 인식을 밝히는 것이다. 연철 및 중철표기는 형태론적 단위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데 체언과 조사의 경계나 어간과 어미의 경계에서는 분철 지향성이 뚜렷해 단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체언 중 유독 ‘것’과 지시대명사는 조사와 연철된 비율이 높아 뚜렷한 어휘의미를 갖지 못하는 체언류는 단어로 인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어기와 접사 역시 일반적으로 분철되었기 때문에 단어의 내적 구성에 대한 문법적 인식도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접사가 공식적 생산성이 없어, 어기가 자립성이 없어, 분철이 이루어져 음성적 유사성에 따른 분석 가능성이 분철의 근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띄어쓰기는 문장이나 절 등 통사론적 단위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다. 문장의 경계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띄어썼고 문장 상당 단위로 불리는 언어형식도 띄어쓰기 경향이 뚜렷했다. 절의 경우, 접속절은 그 경계에서 띄어쓰려는 의식이 매우 강한 반면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 플러스사업단 박사후연구원.

내포절의 경계에서는 붙여쓰기 된 경우도 많았다. 즉, 표기 양상을 통해 볼 때 접속절은 심리적으로 실재하는 문법단위였던 반면, 내포절의 심리적 실재성을 입증할 근거는 확실치 않았다.

주제어 : 문법단위, 표기, 띄어쓰기, 신소설.

I. 서론

이 연구는 근대언어학에서 설정하고 있는 문법의 기본 단위가 심리적으로 실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미터(m)’나 ‘키로(kg)’ 등의 단위는 보통 물리적 실재의 특정 속성을 측정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이러한 단위는 길이 또는 무게의 본질적 속성과는 무관하다. 근대언어학의 도입 이후 언어에도 ‘문장, 절, 단어, 형태소’ 등 측정 단위가 부여되었다. 이들 단위는 언어 분석을 위해 인위적으로 부여된 기준일 뿐일까, 아니면 심리적으로 실재하는 것일까? 본고는 20세기 초 신소설 표기, 특히 연철, 분철, 띄어쓰기 양상을 분석해 근대언어학의 도입 이전에 존재하던 문법단위에 대한 인식을 밝혀 보고자 한다.

신소설은 근대언어학이 정착하기 직전 시기의 자료이다. 따라서 자연발생적인 문법의식 속에서 문법단위를 어떻게 인식하였는지를 살펴보기에 적합하다. 첫째, 연철과 분철은 표면적인 발음 너머에 존재하는 본래 형태에 대한 인식 여부를 반영하므로 단어나 형태소에 대한 인식을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띄어쓰기는 음성연속체에 대한 분절의식을 반영하므로 분절이 이루어진 위치가 문장 및 절의 경계와의 관련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다.¹⁾

이러한 논의를 통해 근대국어에서 싹튼 어간 의식이 20세기로 오며 어떻게 계승·발전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자연적으로 발달되어 온 문법의식이 어문규범의 확립에 어떤 토양을 마련해 주었는지에 대한 이해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II. 분석 자료 및 방법론

연구 자료는 20세기 초에 발행된 신소설 중 서로 다른 작가의 작품 5편이다. 분석 결과가 특정 작품의 언어사용 양상에 따라 치우치지 않도록 각 작품에서 약 1,000어절씩을 무작위로 추출하였으며²⁾ 분석 대상 작품 및 작품별 분석 어절 수는 다음과 같다.³⁾

(1) 표본명 / 작품명 / 작가 / 발행연도 / 분석 어절 수

- N1 / 혈의누 / 이인직 / 1906 / 1,034

- N2 / 빈상설 / 이해조 / 1908 / 1,056

1) 신소설 표기에 대한 정길남(1999), 권정인(2004), 정수희(2009, 2012), 이자형(2011), 최병선(2013) 등의 연구는 대개 구개음화, 전설고모음화, 원순모음화, 두음법칙 등 음운현상의 분석에 주력하였다. 이는 20세기 초 교과서나 성경 등 여타 자료의 표기를 다룬 연구들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표기는 당시의 음운현상에 대한 추론뿐 아니라 문법적 인식에 대한 추론 역시 가능케 한다.

2) 말뭉치 표본 추출 시 적용할 수 있는 무작위 추출법(random sampling)에 대해서는 안예리·이주현(2014)를 참고할 수 있다.

3) 5,000여 어절은 말뭉치로서 규모가 작지만, 원문대조부터 형태 주석, 연철·분철 여부 주석, 띄어쓰기 주석 등을 모두 수작업으로 해야 했고 주석 방법론과 원칙 등도 하나하나 직접 마련해야 했기 때문에, 말뭉치의 질을 높이는 만큼 양을 확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양적 한계를 감안해 분석결과의 해석 시 무리한 일반화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 N3 / 송퇴금 / 육정수 / 1908 / 1,032
- N4 / 설중매 / 구연학 / 1908 / 1,029
- N5 / 경세중 / 김필수 / 1910 / 1,017

형태 주석을 위한 태그셋(tag-set)은 21세기 세종계획 역사자료말뭉치용 태그셋을 활용하되 본 연구의 목적과 20세기 초 자료의 특성을 고려해 몇 가지 태그를 추가하였다. 특히 세종에서 모든 종류의 연결어미를 EC로 단일하게 주석했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절 접속에 쓰인 연결어미만 EC로 주석하고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접속에 쓰인 보조적 연결어미는 ECX로, 반복 구성에 쓰인 연결어미는 ECR로 주석하였다. 또한 보통의 종결어미는 EF로 주석하되, 인용절 등 문장의 내부에 쓰인 종결어미는 EFF로 주석하였다.⁴⁾

주석 결과를 재조합하면 원어절이 복구되도록 원형의 정보를 최대한 반

4) 세종 태그셋과의 차이점으로 본문에서 언급한 점 외에도 주어적 속격을 JKGS로, 부사형 전성어미를 ETB로, 한문구를 CCP로 주석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본고에서 사용한 형태 주석용 태그셋은 다음과 같다.

- a. 체언: 일반명사 NNG, 고유명사 NNP, 의존명사 NNB, 대명사 NP, 수사: NR
- b. 용언: 동사 VV, 형용사 VA, 보조용언 VX, 긍정지정사 VCP
- c. 수식언: 관형사 MM, 일반부사 MAG, 접속부사 MAJ
- d. 독립언: 감탄사 IC
- e. 조사: 주격조사 JKS, 주격을 나타내는 관형격조사 JKGS, 보격조사 JKC, 관형격조사 JKG, 목적격조사 JKO, 부사격조사 JKB, 호격조사 JKV, 인용격조사 JKQ, 보조사 JX, 접속조사 JC
- f. 어미: 선어말어미 EP, 연결어미 EC, 반복구성 연결어미 ECR, 보조적 연결어미 ECX, 종결어미 EF, 문장 내 종결어미 EFF, 명사형 전성어미 ETN, 관형사형 전성어미 ETM, 부사형 전성어미 ETB
- g. 접사: 명사 파생 접두사 XPN, 명사 파생 접미사 XSN, 동사 파생 접미사 XSV, 형용사 파생 접미사 XSA
- h. 한문 문법의 영향: 한문구 CCP

영하여 1차 주석을 하고, 검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변이형을 하나의 대표형으로 통일하여 2차 주석을 하였다. 연철과 분철표기의 주석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2) 연철표기 주석 예 (원어절 : 1차 주석 : 2차 주석)

- a. 더거시 : 더거ㅅ/NP+ ㅣ/JKS : 저것/NP+이/JKS
- b. 쏘다 : 쏘ㄷ/VV+ ㅏ/EC : 쏘/VV+아/EC
- c. 드른죽 : 드르/VV+ㄴ죽/EC : 들/VV+은죽/EC

(3) 분철표기 주석 예 (원어절 : 1차 주석 : 2차 주석)

- a. 더것이 : 더것/NP+ ㅣ/JKS : 저것/NP+이/JKS
- b. 쏘아 : 쏘/VV+아/EC : 쏘/VV+아/EC
- c. 들은죽 : 들/VV+은죽/EC : 들/VV+은죽/EC

이렇게 하면 1차 주석 결과로 연철과 분철의 계량화가 가능하고, 2차 주석 결과로 하나의 형태에 대한 여러 표기를 찾을 수 있다.

띄어쓰기의 경우 띄어쓰기 된 어절 내에서 가장 오른쪽에 위치하는 형태의 태그 뒤에 ^ 표시를 부착하였다.

(4) 띄어쓰기 주석 예

- a. 원어절: 우리도 피란갔다가도로온지가 몇칠되지아니했스니
- b. 1차 주석: 우리/NP+도/JX^+피란/NNG+가/VV+ㅅ/EP+다가/EC+도로/MAG+오/VV+ㄴ/ETM+지/NNB+가/JKS^+몇칠/NNG+되/VV+지/ECX+아니했/VX+엇ㅅ/EP+ㄴ/EC^

위의 1차 주석 예에서 ‘도/JX^’, ‘가/JKS^’, ‘ㄴ/EC^’의 ^ 표시는 원문의 해당 위치에서 띄어쓰기가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 이렇게 하면 태그를

정렬해 놓고 볼 때 어디에서 띄어쓰기가 이루어졌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므로 계량화 작업이 용이하다.

Ⅲ. 연철과 분철에 반영된 형태론적 단위에 대한 인식

연철과 분철표기는 그동안 국어사 연구에서 어간에 대한 의식의 태동과 관련해 주목을 받아 온 현상이다. 중세국어 시기에는 연철이 일반적이었지만 17세기가 되면서 분철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분철표기는 용언의 어간과 어미보다 체언과 조사의 경계에서 먼저 나타났는데(안병희·이광호 1990), 이에 대해 홍윤표(1994:153)는 “표기자들이 체언과 조사의 관계는 분리된 요소로서, 그리고 용언의 어간과 어미와의 관계는 융합된 요소로서 의식했던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하였다.⁵⁾ 신창순 외(1992:147) 역시 역사적으로 연철에서 분철로의 전환은 해당 표기법에 내재된 문법적 기본 단위가 달라졌음을 의미한다고 하여 문법단위에 대한 인식과 표기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5) 체언과 조사의 문법적 경계에 대한 인식이 자연적으로 싹튼 원인으로 이익섭(1963:54), 지춘수(1986:131), 김중진(1986:74), 허웅(1992:16) 등은 한자어에 결합된 조사의 분철표기의 영향을 들었다. 이 연구들에 따르면 연철표기가 일반적이던 중세국어 시기에도 예외적으로 한자어에 대해서는 분철이 이루어졌다. ‘中國(동국)’처럼 중성을 가진 한자어 뒤에서는 분철이 이루어져 ‘中國에’로 표기되었다는 것이다. 중세국어 시기에 한자어는 대체로 한자로 표기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예외적 표기가 문제시되지 않았지만 근대국어 시기로 오며 한자어를 한글로 적는 일이 빈번해졌고 이때에도 종래의 원칙대로 ‘도적이’, ‘관군이’처럼 분철표기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 결과 한자어와 조사가 결합될 때에는 분철이, 고유어와 조사가 결합될 때에는 연철이 이루어지는 이중적 표기가 부각되었고 이러한 인식이 결국 고유어의 분철표기로 이어진 것이다(신창순 외 1992:149).

이 절에서는 형태론적 단위에 초점을 두고 근대국어 시기 분철 의식이 20세기 초 자료에서는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위에서 지적한 체언과 조사, 어간과 어미 사이의 분철은 단어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지만, 체언이나 용언 어간이 다시 그 안에 형태론적 구성을 가질 경우 해당 경계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졌는지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언어학에서 형태소의 개념이 등장한 것은 1930년대 블룸필드 이후이므로 1900년대 표기에 반영된 단어의 내적 구성에 대한 인식은 형태소의 개념이 정립되기 이전에 존재하던 자연발생적 인식이라 할 수 있다.

1. 단어에 대한 인식

자연발생적인 문법의식 속에서 단어가 문법단위로서 존재했는지는 연철과 분철 여부를 통해 추론할 있다. 두 단어가 결합할 때 그 사이의 경계가 인식되었다면 분철이, 경계가 인식되지 않아 하나의 음성연속체로 받아들여졌다면 연철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즉, [sarami]라는 음성연속체에 대해 ‘사람’과 ‘이’ 사이의 보이지 않는 경계를 의식하지 않는다면 소리 나는 대로 ‘사라미’로 적으면 그만이지만 명사와 조사가 별개의 문법단위로 인식된다면 원형을 밝혀 ‘사람이’로 분철하게 되는 것이다. 용언의 경우도 [məgə]라는 음성연속체에 대해 어간 ‘떡-’와 어미 ‘-어’ 사이의 경계가 인식되지 않는다면 ‘머거’로, 경계가 인식된다면 ‘먹어’로 표기하게 된다.

하지만 당시에는 종성 자리에 ‘ㄱ, ㄴ, ㄷ, ㅁ, ㅂ, ㅅ, ㅇ’의 7개 자음만 사용하는 관습이 있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7개 자음 이외의 자음, 즉 ‘ㅈ’이나 ‘ㅎ’ 등이 연철되었다 해도 이를 토대로 해당 어절에 대해 문법적 경계가 인식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종성 자리에 널리 쓰이던 7개 자음이 후행 음절 초성으로 연철되었다면,

이는 문법단위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전제하에 이 절에서는 체언과 조사, 어간과 어미의 경계에서 나타난 표기 양상을 분석할 것이다. 표 1은 표본별로 연철이 일어날 수 있는 음운론적 환경, 즉 체언 또는 어간이 폐음절이고 조사 또는 어미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환경에서 연철과 분철 여부를 조사한 결과이다. 연철과 분철의 중간 단계라 할 수 있는 중철이나 재음소화 표기도 함께 조사하였다. 비교가 가능하도록 빈도를 백분율(%)로 환산해 표시하였다.

〈표 1〉 체언-조사, 어간-어미의 표기 양상(%)

	체언+조사					어간+어미				
	연철	분철	중철	재음 소화	합계	연철	분철	중철	재음 소화	합계
N1	2	98	0	0	100	40	36	16	9	100
N2	2	94	3	1	100	18	60	8	13	100
N3	2	96	2	0	100	46	38	15	0	100
N4	2	97	1	1	100	39	34	13	13	100
N5	22	73	4	2	100	17	31	33	19	100

먼저 체언과 조사 사이의 연철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다. N1~N4의 경우는 연철이 약 2%, 분철이 94~98%이고 중철이나 재음소화도⁶⁾ 드물게 나타나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경우 분철된 셈이다. 2%에 해당하는 연철의

6) ‘꽃’과 ‘-이’의 결합을 ‘꽃이’로 쓰면 분철이고 ‘꼬치’로 쓰면 연철이며 ‘꽃치’로 쓰면 중철인데, 중철표기는 발음과 원형을 함께 나타낸다는 점에서 연철에 비해 문법의식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재음소화는 어절 내부에서 격음이 발음될 때 주로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격음을 표기할 때 선행 음절의 종성에 해당 격음과 조음 위치가 동일한 평음을 쓰고 후행 음절의 초성에 ㅎ을 쓰던 관습이 있었는데, 이러한 관습을 반영한 ‘압혜(ㄷ+ㅎ→ㅍ), 엽혜(ㄷ+ㅎ→ㅍ), ‘꽃혜(ㄱ+ㅎ→ㄷ), 밧혜(ㄱ+ㅎ→ㄷ)’ 등의 재음소화 표기 역시 연철에 비해 단어의 원형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된다.

에는 상당수가 ‘ㅎ’ 종성 체언에서 나타났는데 이는 문법의식과는 무관한 표기 양상이다.⁷⁾

한편, N5는 연철이 22%로 유독 높았는데, 이는 다른 표본과 달리 의존명사 ‘것’과⁸⁾ 대명사 ‘이것, 그것, 무엇’을 후행 조사와 철저히 연철했기 때문이다. 비교를 위해 해당 형태들에 대한 표본별 표기 양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5) 의존명사 ‘것’, 대명사 ‘이것, 그것, 무엇’의 표본별 표기 양상

- a. N1: 허덕거리는것을, 구원흔거시되얏더라, 몹시구는것이라, 전설부인 쓰던것이면, 그회포를 쓴것을보니, 아니듯슬것이다, 잡아갈것이을 시다 / 무엇을흔느라고, 무엇을좁사다가, 란리가무엇인가
- b. N2: 타지못흔것을, 멸족이 간것을 보더니, 그리흔시는것이길년, 그리 흔것이라 / 그것은 무어시요, 그것은 왜 또 사왔소, 무엇을히소, 술 이 다 무엇이오
- c. N3: 막막흔 것은, 쫓치 사랑스러운것이 안이라, 엇더흔것은, 엇던것은, 잡을수 업는것이, 려관에 게시는 것이 / 이것이 윈 일이요, 이것은 또 윈 말이요, 이것이 참말이오니식,
- d. N4: 부르는것이라, 박인것이라, 보닌것을, 알것이니 / 무엇이라말흔 앓는지
- e. N5: 먹을거슬, 츠지러든니는거슬, 빅년디경이나뒤진 거슬, 새 기계로 흔여야 홀거신년, 문명흔고 아니흔거슬, 입학흔는거시, 못홀거시을 세다, 교육력이라 흔는거슬, 운동흔는 거신고로, 강성흔거시을세다 만는, 불거슬, 눈 깜작홀동안 될거신줄, 별노 업는거슬, 가시곳흔거

7) 신소설에는 ‘나ㅎ, ㅎ나ㅎ, 우ㅎ, 쫓ㅎ’ 등 ㅎ종성체언이 널리 쓰였다.

8) 신소설 작품 간의 차이뿐 아니라, 텍스트의 유형에 따라서도 ‘것’의 표기 양상이 달리 나타났다. 김형철(1997:41)에 따르면, 독립신문에서 ‘것’은 주로 연철된 반면 교과서에 서는 주로 중철표기 되었다. 당시 ‘것’은 연철에서 분철로 가는 과도적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체언에 대한 분철의식이 가장 늦게 정착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시 / 간세빅의 형식이 아니고 무어신지요

표본 N1~N4의 경우, N1의 ‘거시’ 한 예를 빼면 모두 분철된 반면 N5의 경우는 일관성 있게 연철되었다. 지시대명사도 N5에서만 연철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여타의 명사들과 달리 ‘것’이나 지시대명사의 경우는 조사와의 분리성이 작가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었다는 점을 입증해 준다. 의존명사 ‘것’이나 지시대명사는 문맥에 따라 지시 대상이 달라져 어휘의미가 고정적이지 않다. 따라서 이들은 보통의 명사들과 같은 부류로 인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분석대상 표본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20세기 초 자료에서 의존명사 ‘이’ 역시 ‘늡으니(늡은+이), 살으나니(살으난+이), 오니(온+이), 가니(간+이), 갓흐니(갓흔+이)’와 같이 선행음절에 연철되었는데, 이 역시 상술한 가설을 뒷받침해 준다.⁹⁾ 이처럼 20세기 초에 체언과 조사의 문법적 경계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확고했지만, 어휘의미가 불분명한 일부 의존명사와 지시대명사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 문법의식이 달리 나타났다.

다시 표 1로 돌아가 용언 부분을 살펴보면, 연철이 17~46%, 분철이 31~60%로, 체언과 조사의 표기와는 큰 차이가 있어 보인다. 중철과 재음소화 표기는 연철에 비해 어간과 어미를 분리하려는 의식을 반영한 것이지만,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연철의 비중이 체언의 경우보다 훨씬 높다. 하지만 이러한 비율 자체만으로 어간과 어미가 별개의 문법단위로 인식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어간과 어미가 연철된 용례 중

9) 20세기 초 자료에서 의존명사의 띄어쓰기는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였는데 1933년 한글맞춤법통일안에서는 의존명사를 앞말에 붙이도록 규정하였다. 즉, 이들을 보통의 명사와 다른 문법단위로 파악한 것이다. 의존명사를 앞말과 띄도록 어문규범이 바뀐 것은 1988년 문교부 고시 한글맞춤법에서부터이다.

상당수에서 어간 말이 7중성(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이외의 자음이었기 때문이다.¹⁰⁾ 분석 대상 표본에서 연철표기 된 중성 자음은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ㅍ, ㅎ, ㄴ, ㄷ, ㄹ, ㅁ’으로, ‘ㄷ, ㅁ, ㅂ’을 제외한 나머지는 당시까지의 표기 관습상 중성 자리에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음들의 연철표기를 근거로 문법의식을 판정할 수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해당 자음들은 논외로 하고 ‘ㄷ, ㅁ, ㅂ’의 연철표기에 대해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ㅁ(너머 보이느)’이나 ‘ㅂ(씨느)’의 경우 특정 작품에서 한두 예가 연철된 게 전부였지만 ‘ㄷ’은 여러 표본에서 여러 어휘에 걸쳐 공통적으로 연철의 경향성이 확인된다.

- (6) a. 김씨압해서 말씩느리더니 김씨집딴문을 흔드러본즉 문이 걸니지아
니하얏거늘<N1>
- b. 어머니가 드르시면 나보다 더ㅎ실 터이지<N3>
- c. 너는 네전풍기와 갓지아니ㅎ고로 침션방적은 대장이나 아러두면
고만이로되<N4>

‘흔드러(흔들+어), 드르시면(들+으시+면), 아러(알+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어간 말음으로 쓰인 ‘ㄷ’이 연철된 예는 여러 표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물론 용언의 어간 말이 ‘ㄷ’이더라도 ‘들어서, 들었느디, 말을치로다’ 등과 같이 분철된 예도 공존하였다. 하지만 음운론적 환경이 동일하더라도 ‘ㄷ’말음 체언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가 결합될 때에는 언제나

10) 체언의 경우 이러한 점이 문제되지 않은 이유는, 분석 대상이 된 체언 중에는 말이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인 예가 대부분이었고, 일부 ‘ㄷ, ㅌ’ 받침을 가진 체언은 ‘ㅂ’받침으로 표기되었기 때문이다. 용언의 경우 7개 자음 이외의 자음으로 중성 위치에 쓰인 것은 ‘ㅈ’이나 ‘ㅎ’, 그리고 겹받침류였는데 한국어 체언 중에는 해당 받침을 가진 예가 많지 않다.

분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용언에서 보이는 ‘ㄷ’의 연철은 용언에 대한 분철 의식이 체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신소설 표기에 나타난 연철과 분철의 경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체언, 조사, 어간, 어미는 오늘날 단어에 해당하는 단위로,¹¹⁾ 이들의 분철 경향을 통해 자연발생적 문법 의식 속에도 단어에 대한 인식이 존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단, 어휘의미가 불분명한 지시대명사나 의존명사에 대해서는 해당 요소가 단어라는 인식, 따라서 후행 조사와 분리하여 표기해야 한다는 인식이 다소 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용언의 경우 어간 말음 ‘ㄷ’이 어미와 연철되기도 했기 때문에, 체언에 비해 용언은 분철 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했다고 생각된다.

2. 단어의 내적 구성에 대한 인식

이 절에서는 파생명사를 중심으로¹²⁾ 형태론적 구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의 철자법에 따르면 기원적으로는 파생명사라도 접사가 공식적 생산성을 갖지 못하면 이를 단일어로 보고 연철한다. 즉, ‘지붕’이라는 현대의 표기에는 이 단어가 기원적으로 ‘집’과 ‘-옹’의 결합이라 할지라도 ‘-옹’이 공시대에서 생산성을 갖지 못하므로 [지붕]이라는 음성연속체

11) 어미는 현행 학교문법에서 단어로 인정되지 않지만, 박진호(1994)에서 어간과 어미 각각을 통사원자로 보고 전통적 단어 개념을 ‘음운론적 단어’와 ‘통사원자’로 해체할 것을 주장한 이후로 최형용(2003), 한정현(2009) 등에서 어미까지 아우르는 단어 개념이 제안되어 왔다.

12) 합성어를 논외로 하는 이유는 해당 형태가 당시의 언어에서 합성어였는지 명사구였는지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용언 합성어의 경우는 ‘돌아오다, 찾아오다, 벗어나다’ 등 동사구 연결구성이 굳어진 꼴이 대부분인데, ‘도라오다, 차차오다, 버서나다’로 연철된 경우 그것이 합성어의 형태적 구성에 대한 인식 문제인지, 아니면 어간과 어미 사이의 경계에 대한 인식 문제인지 불분명하다.

에서 ‘집’과 ‘옹’을 분리해내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형태소’라는 개념이 갖는 외연은 ‘-옹’과 같이 분석은 가능하나 공시적으로 의미나 기능을 갖지 못하는 요소들에 대한 처리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절의 논의를 통해 자연발생적인 문법 인식에서 이러한 단어구성소들이 문법단위로 인식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생산성이 높은 접사의 경우부터 살펴보겠다. (7)은 접사의 종류에 따라 파생명사를 분류한 것인데 표본 내에 용례가 충분하지 않아 21세기세종계획에서 입력한 신소설말뭉치의 용례를 보충하였다. 연철과 분철이 모두 나타나는 형태는 빗금(/)을 기준으로 두 형태를 모두 제시하였다.

- (7) a. -이¹: 분풀이/분푸리(분풀+이), 오막살이/오막사리(오막살+이), 식집살이/식집사리(식집살+이), 절눔발이(절눔발+이) 길이/기리(길+이), 기력이/기러기(기력+이), 동고랍이(동고랍+이), 두루말이/두루마기(두루말+이), 두루말이(두루말+이), 덕갈이/덕가리(덕갈+이), 쌍검이(쌍검+이), 시침이/시치미(시침+이), 진절이/진저리(진절+이)
- b. -이²: 계옥이(계옥+이), 금분이(금분+이), 믹션이(믹션+이)
- c. -음: 슬음/스름(슬+음), 설음/셔름(설+음), 노름/놀+음), 우습(웃+음), 울음/우름(울+음), 졸음/조름(졸+음), 죽음(죽+음), 밋음(밋+음)

(7a)는 ‘-이¹’의 예로, 대체로 연철과 분철이 공존하였는데, ‘두루말이’처럼 분철로만 나타난 단어라 해도 연철이 불가했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조사 범위 내에서 ‘-이¹’ 파생명사가 연철로만 쓰이고 분철로는 쓰이지 않은 예는 없었기 때문에 ‘-이’ 파생명사의 경우 분철 의식이 더 지배적이지 않았나 생각된다. 특히, ‘동고랍이’나 ‘쌍검이’는 ‘동고랍’이나 ‘쌍검-’이 단어로 쓰이지 않았음에도 분철되었는데, 이를 통해 최소의 의미단위가 아니

더라도 단어 구성의 관점에서 볼 때 분석이 가능한 경우 각각을 별개의 단위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7b)는 사람 이름 뒤에 붙는 ‘-이’¹²⁾의 예로, 신소설 어느 작품에서도 ‘-이’가 사람 이름에 연철되는 일은 없었다. 고유 명사는 실세계에서 유일한 대상을 지시하기 때문에 일반명사에 비해 접사와의 분리성도 강하게 인식되었을 것이다. (7c)는 접사 ‘-음’의 예인데 ‘-이’처럼 분철과 연철이 모두 나타났지만 ‘-이’와 달리 ‘노름’, ‘우쑹’처럼 연철로만 쓰인 예도 있었다.

이처럼 생산성이 높은 접사의 경우 연철과 분철이 모두 나타났지만 그러한 중에도 단어의 내적 구성을 밝혀 적으려는 강한 의식이 확인됐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은 당시 공식적 생산성을 갖지 못했던 접사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 (8) a. -억: 줍억, 줍억/주먹, 주먹(줍+억)
- b. -어니: 줍어니/주머니(줍+어니)
- c. -웅: 집웅/지붕(집+웅)

‘-억, -어니, -웅’은 지금처럼 당시에 생산성을 갖지 못했고 분포도 (8)에 제시된 단어 정도로 극히 한정되었는데 그럼에도 분철이 이루어졌다. ‘줍억’과 ‘줍어니’에서는¹³⁾ ‘쥐다’의 명사형인 ‘줍’이 인식되고, ‘집웅’에서는 ‘집’이 인식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파생부사에서도 발

13) ‘-어니’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접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주머니’에 대한 홍윤표 (2004)의 어원 설명을 보면 “‘주머니’는 오히려 ‘줍 + -어니’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줍’은 ‘한 줍, 두 줍’의 ‘줍’인데, 이 ‘줍’은 ‘쥐다’ (把)의 어간 ‘쥐-’의 명사형이다. 즉 ‘쥐-’에 명사형 접미사 ‘-ㄴ’이 붙은 것인데, ‘줍’이 되지 않고 ‘줍’이 되었다. 이것은 ‘(숨을) 쉬다’의 어간 ‘쉬-’에 ‘-ㄴ’이 붙으면 ‘쉽’이 되지 않고 ‘숨’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이다. 그래서 ‘주머니’는 ‘(쥐- + -ㄴ) + -어니’로 분석된다.”라고 하여 이를 ‘줍’과 ‘-어니’의 결합으로 분석하였다.

견된다. ‘너무/너모’는 기원적으로는 동사 ‘넘-’에 ‘-오/우’가 결합된 것이지만, 20세기 초에 ‘-오/우’는 생산성이 없었다. 하지만 신소설에는 ‘넘우/넘오’의 분철표기와 ‘너무/너모’의 연철표기가 두루 나타났다.

지금까지 파생명사의 연철·분철 표기를 살펴본 결과, 접사의 생산성이나 어기의 실재성과 무관하게, 단어의 내적 구성을 밝혀 적으려는 문법의식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신소설 자료에 나타난 과도분철 표기 역시 이러한 문법의식을 방증하는데, ‘게을음(게으름), 금음(그름), 리약이/이약이(이야기), 복단엄이(복단어미), 도간이(도가니), 마직이(마지기), 뭉텍이(뭉테기), 작딕이(작대기), 모주 지괸이(지게미)’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표기 양상은 자연발생적 문법의식 속에 단어보다 더 작은 단위가 존재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그리고 단어의 내적 구성에 대한 인식에서 기준이 된 것은 ‘공식적 생산성’ 혹은 ‘최소의 의미단위 여부’가 아니라 ‘음성적 유사성에 따른 분석 가능성’에 가까운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IV. 띄어쓰기에 반영된 통사론적 단위에 대한 인식

띄어쓰기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이루어진 것은 한글마춤법통일안(1933)에서부터였으므로 19세기 말에 띄어쓰기가 도입된 이후¹⁴⁾ 몇 십 년간 띄어쓰기는 필자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띄어쓰기는 교육의 결과가 아니라 당시 언중들이 가지고 있던 통사론적 단위에 대한 자연발생적 인식을 반영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문장과 절을 중심으로 띄어쓰기에 반영된 통사론적 단위에 대한 인식

14) 국어에 띄어쓰기를 적용한 최초의 문헌은 1877년에 발행된 존 로스(John Ross)의 『Korean Primer(조선어 첫걸음)』로 알려져 있다(홍윤표 2013:115-120).

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문장에 대한 인식

통사론적 단위 중 문장은 음성연속체의 일차적 분절 단위로서 뚜렷하게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소설에는 마침표 등의 문장부호가 쓰이지 않았지만¹⁵⁾ 문장의 경계에서 거의 예외 없이 띄어쓰기가 이루어졌다.

- (9) a. 안쌍이느 건넌방이느 집은흔집이언몬은 안쌍식구는제방에몬 불써
지면 다힘으로안다 의주셔는 피비오논디 평양성중에는 츄우웁소
리가논다 피란가셔어는구석에 숨어잇던사람들이 츄모여들어서
성중에는 옛모양이도라온다 <N1>
- b. 군밤사오 군밤사오 설설슬는 군밤이오 물으니덥소 군밤이오 <N2>
- c. 계옥이가 방으로 드러서며 히당화 가지를 칙상우에 필통에다 쑤고
막 자리를 잡아 안논디 하숙하인이 손에 차그릇을 들고 드러오며
명함 한 장을 내놓논디 한봉긔 세글자라 (하인) 밧셔 오셔서 기다리
시며 귀국에서 드러왔다가 나가시는 길에 잠깐 뵈웁고 간다 흐웁느
다 (계) 드러오시라고 흐게 흐며 본국 사람이라니싹 드러논 오라
흐엿스나 싱각은 나지 안이하는 터이라 <N3>

(9a)처럼 지문에서도, (9b)처럼 대화에서도 문장 경계에서 띄어쓰기가 이루어졌으며 (9c)처럼 지문과 대화문의 경계에서도 대체로 띄어쓰기가 이루어졌다.

15) 신소설에서는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등은 쓰이지 않았지만 대화 중 말을 더듬는 부분에서 말줄임표의 기능을 하는 점들이 나열된 예가 발견된다. 그밖에도 대화문에서 누구의 발화인지를 나타낼 때 ‘(최씨)’같이 괄호를 쓰거나 특정 발화자가 발화 상황에서 발화를 하지 않음을 나타내기 위해 ‘(복).....’과 같이 점을 연이어 찍기도 했다.

신소설에서 문장이 문법적 단위로 분명히 인식되었다는 점은 계량적 분석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주석 결과에서 문장 종결에 쓰인 종결어미(EF)를 뽑아 그 뒤에 띄어쓰기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각각의 빈도는 백분율로 환산하였다.

〈표 2〉 종결어미(EF) 뒤 띄어쓰기 양상(%)

	붙임	띄	합계
N1	0	100	100
N2	0	100	100
N3	1.6	98.4	100
N4	0	100	100
N5	0	100	100

위와 같이 EF 태그 뒤에서는 N3 표본의 단 한 예를 제외하면 모두 띄어쓰기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문장은 문법단위로서 분명히 인식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고의 분석을 위해 문장 종결 위치에 쓰인 종결어미(EF)와 문장 내에 쓰인 종결어미(EFF)를 분리해 주석하였는데, 이 두 태그 뒤의 띄어쓰기 표지(^)를 비교해 보면 문장단위 인식의 실재성을 보다 분명히 알 수 있다. EFF는 인용절이나 내포의문문 등 문장 내에 쓰인 종결어미에 대한 태그이다. EFF뒤에 띄어쓰기가 이루어진 비율은 N1에서 N5 순서대로 10%, 89%, 92%, 13%, 38%로 들쭉날쭉했다. 즉, 하나의 완결된 생각이 마무리되는 지점(EF)에서는 모든 작가들이 공통적으로 해당 부분을 분절 위치로 인식한 반면, 같은 형태의 종결어미가 쓰였다 해도 명제의 의미가 완결되지 않은 위치(EFF)에서는 작가에 따라 분절 여부에 대한 인식이 제각기 달랐던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문장들은 하나의 완성된 명제를 담고 있으며 주술관계가 성립하고 형식적으로도 종결어미를 갖춘 전형적인 문장이었다. 하지만 언어 자료를 분석하다 보면 이러한 전형적 틀에서 벗어나는 여러 종류의 문장 상당 단위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연결어미나 명사형어미로 종결되는 경우, 말줄임표가 쓰인 경우, 독립어가 홀로 쓰인 경우 등 문장의 의미적, 형식적 조건을 갖추지 못한 문장 상당 단위들은 신소설에서 어떻게 인식되었을까?

- (10) a. 서양목테를 흔허리 똑 썩거민든 밤집게를 쌍에다 툇터디고 오동빚
꺾흔 검임뭇은손으로 머리를 득득글그며 이런 괴막헐 일도 있나
<N1>
b. 부인이 희식이만면하야 미선의등을 어루만지며 갈으딘 너의말을드
르니 닉가안심하야 죽어도 눈을 감으리로다<N4>
c. (한) 그제는 하여간 지난일이어니와 (계) 고여시금여시지요<N2>

신소설에는 (10a), (10b)와 같이 지문에서 대사로 이어지는 부분에서 지문 부분이 연결어미로 끝난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경우 항상 연결어미 뒤에 띄어쓰기가 이루어졌다. (10c)처럼 대사가 연결어미로 끝날 때에도 역시 띄어쓰기가 이루어졌다.

위의 예는 모두 의미상으로는나 텍스트 구조상으로는나 해당 부분에서 필연적으로 분절이 이루어져야 한다. (10)에 제시된 불완전문이 당시 ‘문장’으로 인식되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일 수 있지만, 문장의 형식을 갖추지 못한 채 문장이 종결된 경우라도 그 기능에 따라 분절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독립어(IC) 역시 나머지 부분과 구분되는 별개의 단위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1) a. 네 그집이오<N1>

b. 여보 령감계실적인들 아씨게서 고싱을적게 헛섯소만은<N2>

c. 예구 하늘님 맙시사 보논디가잇고 우아티사름된 법이잇스잇가 쉼
먹은 병어리처럼지니지마는 남의못홀노릇을 넘오말으시지<N2>

d. 아고 이것이 참말이오나썩<N3>

e. 여보게 그말말게<N4>

위의 예문에서처럼 호칭이나 감탄사는 거의 대부분 뒷말과 띄어쓰기 되었는데, (11b)처럼 후행 요소들을 거의 붙여쓴 경우에도 감탄사는 분리하는 의식이 뚜렷했다. 또한 (11c)에서처럼 감탄사가 여러 개 쓰인 경우에도 서로 간에 띄어쓰기가 되었다. 이러한 호칭이나 감탄사들은 그 자체로 명제 내용을 담고 있지도 않고 주술관계도 성립하지 않으며 문장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고 있지 못하지만 담화화용적 기능상 나머지 부분과 뚜렷이 구별되기 때문에 띄어쓰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¹⁶⁾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종결어미로 끝난 전형적 문장들의 경계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분절이 되었다. 또한 소위 불완전문에 속하는 문장 상당 단위들 역시 대체로 그 경계에서 띄어쓰기가 이루어져, 의미적으로 혹은 형식적으로 온전한 문장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기능에 근거해 분절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16) 접속부사(MAJ)의 띄어쓰기 역시 담화화용적 기능에 따른 띄어쓰기 양상을 보여준다. 일반부사(MAG)의 경우 후행 용언과 붙여쓰는 일이 많았지만 접속부사는 뒷말에 붙이는 일이 거의 없었다. 이는 접속부사가 문장과 문장의 논리적 관계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담화표지로서 기능이 뚜렷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아래와 같은 예를 볼 때 접속부사를 나머지 문장으로부터 독립된 단위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러는 그집에아무도업나보오<N1>

예) 그러나 너의부친말삼은 심량이 한문도런숙하고 지식도명민하니<N4>

2. 절에 대한 인식

자연발생적인 문법의식 속에서도 문장이나 문장 상당 단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인식이 절 단위에도 적용됐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1에서는 접속절의 경계, 2.2에서는 내포절의 경계를 중심으로 절 단위의 인식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다.

1) 접속절

분석 대상 신소설 표본에서 선행절과 후행절의 띄어쓰기 여부를 살펴본 결과, 모든 표본에서 띤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아 접속절은 그 경계가 비교적 분명히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12)는 각 표본에 나타난 접속절의 전형적인 예로, EC로 태깅된 연결어미 부분에 밑줄을 친 것이다.

- (12) a. 둘중에ㅎㄷ만 돈이잇스면 셔로꾸어쥬며 투전을ㅎ고 둘이 다돈이업
스면 담비ㄴ기밤웃이라도아니~~놀고~~ㄴ 못견디다<N1>
- b. 편지심부름을 너가 일상히~~지만~~ 보시는 소리를 ~~듯던~~지 령감의 눈치를 ~~봐와~~도 그딴데~~되~~ 아모사식 안이게십디다<N2>
- c. 말셔 오셔서 괴다리시며 귀국에서 드러~~왔다~~가 나가시는 길에 잠간 봐웁고 간다 ㅎ웁니다<N3>
- d. 너가너를 다리고 고향을쎄나 경성에온지 일년이~~못되~~야 너의부친은 세상을바리시고 금석갓치밋든심량은 지금것간곳을 아지~~못~~ㅎ고 다만 우리모녀서로 의탁~~하~~지~~니~~다가 이러~~듯~~병이 깁히 이지~~못~~홀디정에이르니 너의외로운 마암이 오작~~히~~리오<N4>
- e. 보기에 춤추는것 긔ㅎ고로 더 음부들이 빅가지 교티로 장부를 호리라~~고~~ 춤추면 나뵈춤이라~~히~~니 듯기에 창피~~히~~ 말이올세다<N5>

신소설은 한 작품 안에서도 띄어쓰기의 경향이 일정하지 않았지만 그럼

에도 접속절의 경계에서는 대체로 띄어쓰기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은 본 연구에서 ECX로 주석한 보조적 연결어미 뒤에서의 띄어쓰기 양상과 비교해 볼 때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보조적 연결어미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연결하는 데 쓰여 접속절의 경계를 이루지 않았는데, 신소설 표본들에 쓰인 보조적 연결어미는 대체로 후행 보조용언과 붙여썼다. 앞서 살펴본 (12)의 예문 중 (12a)의 ‘셔로꾸어쥬며’, (12d)의 ‘아지못고’에서처럼 보조적 연결어미 ‘-어’, ‘-지’ 등은 뒷말에 붙이는 경향이 있었다.

표 3은 각 표본에서 EC 태그와 ECX 태그 뒤의 띄어쓰기 여부를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표 3〉 연결어미(EC)와 보조적 연결어미(ECX) 뒤에서의 띄어쓰기 양상(%)

	EC			ECX		
	붙임	뗂	합계	붙임	뗂	합계
N1	21	79	100	97	3	100
N2	9	91	100	76	24	100
N3	0	100	100	15	85	100
N4	4	96	100	77	23	100
N5	2	98	100	59	41	100

연결어미의 경우 N1에서만 21%가 후행 요소와 붙여쓰기 되었고 나머지 표본에서는 띄어쓰기 된 비율이 90% 이상이었다. N1의 경우 붙여쓰기 된 부분을 살펴보면 (13)과 같이 동사구 연결구성으로 볼 수 있는 표현들이다.

- (13) a. 갓치부터지느고<N1>
 b. 물에써셔느려가다가<N1>
 c. 구름에비못어든이드시<N1>
 d. 그집문근에 사름이와셔찾는자도업섯더라<N1>

e. 엇더흐노인이 부담말타고오다가<N1>

f. 궁금흐여못난말이오<N1>

‘붙어 지내다’, ‘떠서 내려가다’, ‘묻어 다니다’, ‘와서 찾다’, ‘타고 오다’, ‘궁금하여 묻다’ 등의 표현은 선후행 용언이 개재 요소 없이 직접 연결되어 하나의 동작을 나타낸다. 물론 표본에 따라 편차가 있긴 했지만 동사구 연결구성에 쓰인 ‘-어’, ‘-어서’, ‘-고’ 등의 연결어미는 절 접속에 쓰인 연결어미들과 달리 문법적 경계로서의 성격이 분명히 인식되지 않았던 것이다.

동사구 연결구성이 아니더라도 해당 연결어미를 기준으로 앞뒤 요소가 상대적으로 긴밀한 의미적 연관을 갖는 경우 붙인 예들이 보인다. 한 예로, ‘상놈들은 양반이죽이면죽엿고 썩리면마졌고’를 보면, 연결어미 ‘-으면’은 후행 동사와 붙여쓰기 된 반면 ‘-고’는 띄어쓰기 되었다. 이 문장에서 일차적인 의미상의 분절이 ‘-고’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V₁락 V₂락’, ‘V₁든지 V₂든지’, ‘V₁고 V₂고’, ‘V₁으나 V₂으나’ 등 반복구성의 경우도 ‘되락말락’, ‘깎고얏고곤에’처럼 붙인 예가 많았는데 이 역시 의미적 분절이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표 3에서 ECX로 태깅된 보조적 연결어미는 N3를 제외한 나머지 표본에서 후행 요소와 띄어쓰기 예보다 붙인 예가 많았다. N3는 연결어미의 띄어쓰기가 100% 이루어지는 등 다른 표본들에 비해 띄어쓰기 의식이 강하게 반영된 표본으로, 보조적 연결어미에 대해서도 비교적 철저하게 띄어쓰기를 한 것이다. 전체 표본을 볼 때 ECX를 뒷말과 띄어쓰기 비율의 평균은 35.2%임에 반해 EC를 뒷말과 띄어쓰기 비율의 평균은 92.8%로,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경계에 비해 접속절의 경계에서 띄어쓰기 비율이 현저하게 높았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처럼 통사적 단위 중 문장과 접속절은 음성연속체에 대한 기본적인 분절 단위로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내포절의 인

식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다.

2) 내포절

접속절은 그 경계에서 문장이 양분되지만 내포절은 상위문의 문장성분으로 쓰이기 때문에 문제가 좀 더 복잡하다. 내포절의 경계에서 띄어쓰기가 되었다고 할 때, 그것이 내포절을 한 덩어리로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만약 내포절 내부에서는 띄어쓰기가 잘게 이루어졌음에도 내포절의 마지막 어절과 후행 요소는 붙여쓰기 되었다면,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내포절이 한 덩어리로 인식되지 않았음을 추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제 그가 다녀갔음이분명하다’로 표기되었다면 ‘어제 그가 다녀갔음’이라는 명사절이 한 덩어리로서 ‘분명하다’와 통사적 관계를 맺었다는 인식이 전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띄어쓰기 양상을 통해 내포절의 인식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이 절에서는 명사절과 관형절의 경계에서 직접 후행 요소와 붙여쓰기가 되었는지의 여부를 살펴려고 한다.

명사절은 그 경계에서 띄어쓰기가 된 예도 많았지만 (14)처럼 안 된 예도 많았다.

- (14) a. 학도갓치보이는사람은 그 거주와통호를 슈첩에적고 분명히 학도가
아님을변명후에 입장하게되더라<N4>
b. 원산에 다시가기어려운 줄은 잊지 모로곶슴닛가<N3>
c. 세상을바리기전에 너의말을 듯고자하느일이잇도다<N4>

(14a), (14b)를 보면 명사절 내부에서는 띄어쓰기가 됐지만 명사절의 경계에서는 띄어쓰기가 되지 않았다. 수식언에 해당하는 ‘분명히’, ‘다시’ 같은 부사어조차 띄어썼음에도 ‘아님을변명하다’, ‘가기어렵다’로 붙여쓴 것

은 (14a)에서 ‘변명하다’가 ‘분명히 학도가 아님’이라는 명사절을 논항으로 취한다거나, (14b)에서 ‘어렵다’가 ‘원산에 다시 가기’라는 명사절을 논항으로 취한다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오히려 ‘아님을 변명하다’나 ‘가기 어렵다’가 문장 안에서 상대적으로 더 긴밀한 요소로 인식된 것이다. (14c)에서도 ‘세상을 바리기’보다 ‘바리기 전에’를 더 유기적인 단위로 여긴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관형절의 띄어쓰기는 후행하는 명사가 의존명사인가 일반명사인가에 따라 달랐는데, 의존명사는 거의 대부분 붙여썼고 일반명사는 붙이기도 하고 띄기도 했다. (15)는 의존명사에 선행한 관형절의 전형적인 띄어쓰기 양상을 보여 준다.

- (15) a. 우리도 피란갔다가도로온지가 몇칠되지아니했었스니<N1>
 b. 군밤장수가 어이가 업서 텃덤이셨다가 그스람이 멀죽이 간것을 보
 더니 줍억으로 쌍을치고 혼자 사설을혼다<N2>
 c. 부음은 편지를 손에다 쥐인척 고기를 쌍에다 박고<N3>
 d. 그사진이 십삼세씩에 박인것이라혼죽<N4>
 e. 우리 시조 아모씨는 명현이지 하는~~자~~들의 싱각에 언제나 다시 엽전
 이나 당백시절이라도 혼번불고 혼니<N5>

(15)의 ‘지, 것, 척, 자’ 등 의존명사를 관형절에 붙이는 것은 모든 표본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경향이었다. 의존명사는 지시 의미도 불분명하고 분포도 관형어 뒤로 제한되기 때문에 관형절에 결합된 문법적 요소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관형사형 어미와 의존명사의 붙여쓰기 현상이 의존명사에 대한 불분명한 인식에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16)에서처럼 일반명사의 경우도 관형절에 붙여쓴 예가 많기 때문이다.

- (16) a. 얼는죽지는 아니하고 물에써서 느려가다가 빈에잇던사람의게 구원
 흔거시되얏더라<N1>
 b. 나는 쓸을 팔아오고 십흔싱각이 더 잊지만<N2>
 c. 한참만에 혼자말로 사정석거 하는소리는 사람이 귀로 듣기 참아 못
 홀 일일너라<N3>
 d. 벌써 일년이나 지난중병으로 이갓치 신고하야 쌔만남엇스니<N4>
 e. 만일 어는 즐싱이나 독슈리나 해고저 홀쌔에<N5>

(16)에서도 (15)에서처럼 관형절 내부에서는 띄어쓰기가 됐지만 관형사형 어미와 피수식명사는 붙여썼다. (16d)의 ‘벌써 일년이나 지난중병’에서는 ‘벌써 일년이나 지난’보다 ‘지난병’이 더 긴밀한 형식으로 인식된 것이다.

명사절과 관형절에 대한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해 볼 때, 내포절은 그 자체가 하나의 응집성 있는 단위로서 인식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앞서 살펴본 접속절의 띄어쓰기 양상과 대조적이다. 띄어쓰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표본에서조차 접속절의 경계에서는 거의 대부분 띄어쓰기가 됐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인 문법의식 속에서 접속절은 독자적인 단위로 인식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문법단위로서의 내포절에 대한 인식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찾을 수 없었다.

V. 결론

지금까지 1900년대 신소설에 나타난 연결·분절, 띄어쓰기 양상을 분석해 신소설 표기에 반영된 형태론적 단위 및 통사론적 단위에 대한 문법의식을 살펴보았다. 먼저 특징적인 표본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고 이어서 형태론적 단위 및 통사론적 단위 각각에 대한 인식 여부를 기술하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이인직의 작품인 N1은 다른 표본들에 비해 연결어미 및 보조적 연결어미를 붙여 쓴 비율이 높은 반면, 육정수의 작품인 N3는 연결어미뿐 아니라 보조적 연결어미까지 띄어 쓴 비율이 월등히 높아 현대국어 표기 원리에 가장 근접한 표본이었다. 한편 다른 표본들은 모두 체언의 분철 경향이 뚜렷한 반면, 김필수의 작품인 N5는 의존명사 및 지시대명사의 연결 표기 비율이 유일하게 높게 나타나 해당 작가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외연이 다른 작가들과 달랐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어서 문법 단위별 인식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형태론적 단위의 경우, 당시 체언과 조사, 어간과 어미는 분철표기가 우세해 별개의 단위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예외가 없지는 않았다. 특히 체언이 지시대명사나 의존명사일 경우 조사와 연결되기도 했는데, 해당 체언들은 일반적인 명사들과 달리 지시대상이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조사와 분리되는 요소로 인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당시 단어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존재했지만 어휘의미가 뚜렷하지 않은 일부 체언은 단어로 인식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어간과 어미도 분철의 경향이 뚜렷했지만 어간 말음이 ‘ㄹ’인 경우에 한해서는 연결의 예가 종종 나타나 체언에 비해 용언에서는 문법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신소설 표기에서는 단어 자체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단어의 내적 구성에 대한 인식도 확인된다. 파생명사를 중심으로 어기와 접사의 경계에서 연결·분철 여부를 살펴본 결과, 두 가지 표기가 공존하는 가운데에도 분철의 지향성이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실재성이 없는 형태일 때에도 접사를 분철한 것이나, 당시의 공시태에서 생산성이 없어 이미 화석화된 접사들도 분철한 것이 그 근거이다. 오늘날 형태소의 외연을 확정하는 이론적 논의가 분분한데, 20세기 초기 표기 경향에 반영된 형태적 구성에 대한 인식은 최소의 의미단위나 공시적 생산성보다

는 음성적 유사성에 따른 분석 가능성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이처럼 20세기 초에는 형태론적 단위에 대한 자연적 문법의식이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7종성 표기의 관행은 문법적 경계를 밝혀 적으려는 의식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꼬치]에서 ‘꽃’이 ‘-이’와 별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ㅈ’을 종성 자리에 쓰지 않는 관습 때문에 이를 ‘꼬치’ 또는 ‘꽃치’로 적어야 했던 것이다. 주시경을 비롯한 당시 국어학자들이 종성 제한 폐지를 강력히 주장한 것도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려는 의지와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¹⁷⁾ 근대국어로부터 계승·발달된 문법의식이 당시의 표기 관습과 불일치하다는 문제의식은 어문 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표기 규범을 마련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사론적 단위 중 문장은 거의 예외 없이 일차적 분절 단위로 인식되었고, 오늘날 문장 상당 단위로 언급되는 언어형식들도 분절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접속절 역시 대체로 그 경계에서 띄어쓰기가 이루어졌는데, 띄어쓰기가 거의 안 된 표본에서조차 접속절의 경계에서는 대체로 띄어쓰기를 한 것으로 보아 접속절은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내포절의 경우는 그 경계에서 띄어쓰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예가 상당수여서 자연발생적 문법의식 속에서 내포절은 하나의 문법적 단위로 인식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17) 국문연구소에서 1909년에 제출한 ‘국문연구의정안’은 이러한 종성 제한을 폐지하는 규정을 발표하였지만 국권 상실로 인해 실효성을 갖지 못했고, 1930년 총독부 언문철자법을 거쳐 1933년 한글마춤법통일안에 와서야 비로소 모든 자음을 종성에 사용한다는 규정이 확립되었다.

【참고문헌】

- 권정인, 『신소설의 표기법 연구: 「런광당」과 「옥매화」를 중심으로』,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김중진, 『近代國語表記法研究』,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 김형철, 『개화기 국어연구』, 경남대학교출판부, 1997.
- 박진호, 『통사적 결합 관계와 논항구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신유식, 『개화기 국어표기법 연구』, 청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신창순·지춘수·이인섭·김중진, 『國語表記法の展開와 檢討』,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 안병희·이광호, 『중세국어문법론』, 학연사, 1990.
- 안예리·이주현, 「20세기 문어 말뭉치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띄어쓰기와 표본 선정 및 추출」, 『한국어학』63, 한국어학회, 2014, pp.229-265.
- 이익섭, 『15世紀 國語의 表記法 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3.
- 이자형, 『개화기 국어 체언 말 자음의 표기에 관한 연구: 20세기 초 신소설 작품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정길남, 「신소설의 자음 표기 현상에 관하여」, 『초등국어교육』9, 서울교육대학교, 1999, pp.9-31.
- 정수희, 「개화기 국어의 표기 방식에 대한 계량적 이해: 신소설 「원앙도」, 「혈의누」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17,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9, pp.7-35.
- _____, 『개화기 국어의 표기와 음운체계: 신소설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정승철, 「개화기 국어 음운」,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4 개화기 국어』, 국립국어연구원, 1999, pp.7-59.
- 지춘수, 『國語表記史研究』,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 최병선, 「〈혈의 누〉 표기법의 과도기적 특징」, 『한국언어문화』51, 한국언어문화학회, 2013, pp.255-274.
- 최형용, 『국어 단어의 형태와 통사-통사적 결합어를 중심으로』, 태학사, 2003.
- 한정한, 「단어를 다시 정의해야 하는 시급한 이유들」, 『언어』34, 한국언어학회, 2009, pp.761-788.
- 허 웅, 『15·16세기 우리 옛말본의 역사』, 탑출판사, 1992.

홍윤표, 『근대국어연구(1)』, 태학사, 1994.

_____, 「‘주머니’의 어원」, 『새국어소식』8월호, 국립국어원, 2004.

_____, 『한글이야기1: 한글의 역사』, 태학사, 2013.

Abstract

Perception of Grammatical Units in Sinsoseol
- Focusing on Spelling and Spacing -

An, Ye-Lee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perception of grammatical units in Sinsoseol published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before codification and standardization of the Korean language. Korean syllable can be written with or without the boundary marking between words or morphemes thus we can trace the perception of word and morpheme by analyzing spelling patterns. The boundary between noun and particle, or stem and endings seemed to be clearly perceived by the early twentieth century writers. Although there were exceptions of bound nouns and pronouns, there was a concept of word in natural linguistic perceptions. Morphemes also seemed to be perceived as a grammatical unit given the fact that suffixes were mostly separated from its base. Moreover, spacing reflects the perception of syntactic units such as sentence and clause. While the boundary of sentences and conjunctive clauses were almost always marked, that of embedded clauses was not clearly marked.

Key Word : grammatical unit, orthography, spacing, sinsoseol.

안예리

소속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사업단 박사후연구원

주소 : (121-808)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이대푸르지오시티 1903호

전화번호 : 02) 2123-7532 / 010-3762-3039

전자우편 : yelee.a@gmail.com

이 논문은 2015년 2월 28일 투고되어
2015년 3월 3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5년 4월 10일 게재 확정됨.